

영화 <블루프린트> 속에 투영된 인간복제 모티프의 특성

Characteristic of the Human Cloning Motif in Feature <Blueprint>

정원식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Won-Sik Jung(neoimage@gmail.com)

요약

현실세계에서의 인간복제에 관련된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영화 속에 투영되며,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시나리오와 그에 파생되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특히 체세포복제술이 보편화된 이후로 인간복제는 영화 속에서도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데,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인간복제의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성찰이 투영된 영화 <블루프린트>를 중심으로 영화 속의 인간복제 모티프의 특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이 글은 체세포복제술 개념의 출현과 발전이 철학적 인간학의 문제로 귀결되고, 특히 복제인간의 자기동일성과 비자연성의 문제가 영화 <블루프린트>에서 캐릭터의 욕망과 딜레마로 투영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원본인간과 복제인간이자, 실제 낳고 기른 친모와 딸이라는 이중적인 관계의 설정과 장르적 특성을 배제한 드라마타이즈는 이 작품이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천착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적절히 부응하는 서사적 평행성을 갖는 플롯 설계와 더불어 다양한 영화적 표현과 기법 들을 통해 일관된 접근 태도와 주제 의식으로 인간복제 모티프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 중심어 : | 인간복제 | 영화 <블루프린트> | 인간학 | 비자연성 |

Abstract

Rapid development of life sciences about human cloning in real world is reflected alternately ahead and behind in the movies and it brings up the conversation topics about the scenario of diverse human life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is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human cloning motif in movies, focused on the feature film <Blueprint> which consider human cloning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somatic cell cloning conclude the problem of philosophical anthropology. And identity and un-naturality of human clone boils down to desire and dilemma of character in <Blueprint>. The dramatize to the exclusion of genre's attribution and the setting of twofold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and clone as well as real mother and daughter prove the critical mind of <Blueprint> as stated above. This study also reported it reinforces the characteristic of the human cloning motif in movies that plotting with parallel narrative and the consistent attitudes with various cinematic expression and techniques.

■ keyword : | Human Cloning | Feature <Blueprint> | Humanics | Un-naturality |

I. 서론

1996년, 20세기 끝자락에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된 한 편의 연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이언 윌버트 박사 연구팀의 복제 양 돌리 탄생에 관한 연구였다. SF영화의 고전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1982)에 등장했던 복제인간이 더 이상은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 그 가능성의 실마리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2000년, 로저 스포티스우드 감독의 SF영화 <6번째 날>(The 6th Day, 2000)이 발표되었다. 복제 애완동물쯤은 당연해진 미래를 배경으로 평범한 가장인 주인공 '아담 김슨'이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또 다른 남자를 발견하면서, 복제인간을 통해 영생을 꿈꾸며 세상을 지배하려는 '마이클 드러커'와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 영화는 인공자궁이 등장하고, 배양 탱크에서 인간복제가 이루어지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 12월 26일, 종교단체 라엘리안 무브먼트에서 세운 클로나이드사가 최초의 복제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이브'의 탄생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3년, 톨프 슈벨 감독의 영화 <블루프린트>(Blueprint, 2003)가 개봉되었다. 천재적인 여성 피아니스트 '이리스'가 불치병에 걸리면서 자신의 재능을 그대로 복제한 '시리'를 딸로 키우며 생기는 복제인간의 정체성과 비자연성에 관한 영화다.

그리고 2004년, 황우석 박사는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일약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복제 수율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Science)지에 논문이 실리면서 다시 한 번 인간복제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다. 2005년에는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아일랜드>(The Island, 2005)가 공개되었다. 인간에게 장기나 골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격리된 외딴 곳에 만들어진 인간복제 공장에서 탈출하게 된 복제인간 '링컨 6-에코'의 이야기다. "처음 이 영화를 구상했을 때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 SF영화였으나 한국에서 인간의 배아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해 허구가 아닌 사실이 되었다." 라고 한 <아일랜드>의 제작자 윌터 파크스

의 말처럼, 이렇게 지난 십여 년 동안 인간복제 기술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영화 속에 투영되고 피드백을 받으며 숨 가쁘게 진행됐다.

1997년 3월 10일 자 Time 지의 복제 양 돌리 출현 1주년 기념 특집에서는 인간복제가 현실화될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1]

- (1) 장기나 골수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인간복제
- (2) 자신과 동일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인간복제
- (3) 과학이나 예술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과학자나 예술가를 복제한 인간복제
- (4) 죽음이 임박한 독재자나 기업이나 조직의 우두머리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전과 같은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복제
- (5) 히틀러와 같이 이미 죽은 사람이 남긴 세포를 이용하여, 죽은 사람을 부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인간복제

영화 <아일랜드>가 1번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에서 영화의 설정을 시작한 것이라면, 영화<블루프린트>는 2번과 3번 시나리오에서 영감을 얻어 자기동일성과 정체성에 대한 물음으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곳곳에 히틀러의 복제아기를 키운다면?'이라는 흥미로운 설정에서 출발한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의 영화 <잔혹한 음모>(The boys from Brazil, 1978)는 반대로 4번과 5번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현실세계에서의 인간복제에 관련된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영화 속에 투영되며,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에 파생되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특히 이는 인문학과 예술의 근본적인 화두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담론을 그 바탕에 두고 있기에 더욱 흥미롭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인간복제의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이 투영된 영화 속 인간복제 모티프^[2]의 특성에 대해, 영화 <블루프린트>의 영화적 스토리텔링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복제 모티프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본 론

1. 인간복제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

복제동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은 대부분 체세포복제 방식이다. 간단히 말하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 대신, 핵을 제거한 난자와 체세포를 전기, 화학적 방법으로 융합해 수정란을 만든다. 난자는 영양분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유전정보는 체세포의 제공자와 같게 된다. 수정란은 대리모에 이식되고 이후 정상적인 임신과정을 거쳐 복제된 개체가 태어난다.

이전의 수정란 복제술과 복제 양 돌리 이후의 체세포 복제술은 단순히 생명 공학적 복제 방식의 차이를 넘어서는 유전적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인간 복제의 가능성과 그 사회적 파급효과에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전자의 경우 복제물들이 단지 ‘수정란’과 동일한 유전자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복제물들은 서로 동일한 유전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보증될 수 있을 뿐 복제물들이 어떤 개체로 성장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예측될 수 없다. 수정란은 수컷의 수많은 정자 중의 하나와 암컷의 난자 중의 하나가 결합한 것이고, 또한 수정 할 때 유전자의 재조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체세포복제의 경우, 복제물들은 이미 성장한 체세포의 핵을 제공한 동물 그 자체와 동일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3]

즉, 수정란 복제 방식에서와 같이 초기 발생단계에 있는 동물의 경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잠재된 능력과 특성을 알기 어렵다. 반면 체세포복제 방식처럼 이미 성장한 동물을 복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제인 ‘이미 성장한 동물로부터 이와 똑같은 다른 개체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체세포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미 사망한 아인슈타인이나 전설적인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부터 축구 황제 펠레,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 피겨 여왕 김연아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들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4]

그러나 우리가 떠올리는 인간복제의 현실화와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복제인간의 출현에는 아직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며 그와 함께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 한계^[5]보다 더 큰 문제점은 사회적, 문화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칭기즈칸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그가 칭기즈칸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대한 정복자가 될 약간의 포악한 성격은 타고날지 모르나 세상이 완전히 판판으로 바뀐 현대에 그가 제2의 칭기즈칸이 될 확률은 거의 영에 가깝다.^[6] 이는 복제된 인간은 원본 인간과 동일한 인간인가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서부터 그렇다면 동일한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복제인간도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와 같은 ‘철학적 인간학’^[7]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주요 논쟁은 네 가지 측면, 즉 복제인간의 자기동일성, 불안정성, 도구화 가능성, 비자연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8]

2. 인간복제 모티프의 4가지 주요 논쟁점

복제인간의 자기동일성은 인간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물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즉 ‘복제인간은 원본인 인간과 동일한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며, 이는 원본과 복제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복잡한 철학적 논증을 떠나서도 조금만 고민해보면 직관적으로 우리는 원본 인간과 복제 인간의 동일성에 대해 부정적 일수밖에 없다. 체세포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다양한 환경과 경험에 따라 유전자도 다르게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인의 유전자를 복제한다고 해도 그 복제인간은 그만의 자기동일성을 갖는 별개의 존재^[9]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복제인간의 불안정성은 인간 복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와 실패가 윤리적으로 용납 가능한가와 인간 복제의 결과로 탄생한 복제인간의 기형이나 돌연변이 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복제 양 돌리는 277번, 복제 소 영롱

이는 15000번 이상의 시행착오 끝에 탄생하였다.[10] 이는 복제인간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개에서 수천, 수만 개의 난자나 수정란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물복제의 경우 탄생한 지 6개월 만에 죽은 복제 양 돌리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사, 기형, 돌연변이 등의 사례가 무수히 많다. 인간복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는 보장이 없음은 물론이다.

복제인간의 도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복제인간도 하나의 독립적 인간으로 하나의 ‘존재’라는 전제 아래 성립한다. ‘도구’와 ‘존재’의 차이는 ‘대체할 수 있음’과 ‘대체할 수 없음’의 차이로 귀결된다.[11] 영화 <아일랜드>에서 고액의 돈을 지급한 인간에게 장기를 공급하기 위해 탄생된 복제인간들은 결국 ‘존재’가 아닌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이들은 언제나 대체 가능한 일종의 상품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화는 인간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제인간의 비자연성에 대한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자 양날의 검과 같다. 체세포복제는 인류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한 생식과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의 법칙에 벗어나는 비자연적 특성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불임 부부나 동성 부부 등에게는 꿈에서도 바라던 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세포복제를 통해 태어난 복제인간은 어머니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양친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유전자의 결합을 통한 자연적인 진화라는 과정이 거세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지되어 온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기 자신의 유전자 풀(pool)과 똑같은 유전자 풀을 만들어내는 것, 다른 사람과의 아무런 감정교류 없이 자기도취에 빠져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근친상간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12]라는 물음은 기존의 윤리와 가족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드는 복제인간의 비자연성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3. 영화 <블루프린트>의 인간복제 모티프 특성

3.1 인간복제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주요 등장인물의 욕망과 딜레마

욕망은 환유이다. 대상은 신기루처럼 잡는 순간 저만큼 물러난다. 대상은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에 인간은 대상을 향해 가고 또 간다.[13] 영화 속 세계의 등장인물들도 마찬가지이다. 관객을 대리하여 영화 속에서 정서적 동일시를 하게 해주는 주요 등장인물은 그래서 늘 무언가를 욕망한다. 그래서 영화 속 등장인물의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는 열쇠는 욕망’[14]이다.

모든 고전적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욕망과 범의 충돌이라는 오이디푸스의 장면을 재연한다는 알랭 베르갈라(Alain Bergala)의 말처럼[15], 영화 <블루프린트> 속 등장인물들 역시 인간복제 모티프에 대한 각자의 욕망과 딜레마, 그리고 좌절과 해소를 겪는다.

영화 <블루프린트>에서 인간복제라는 모티프에 연관되는 욕망을 갖는 등장인물은 이리스와 시리 그리고 피셔 박사이다. 이들은 모두 1차적(외면적) 욕망과 2차적(내면적) 욕망이라는 복합적인 욕망을 보여준다. 등장인물의 이런 복합적인 욕망은 인간복제 모티프가 갖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한 반영이자 원인이 되며, 또한 영화적으로는 캐릭터의 사실성과 입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표 1. 주요 등장인물의 욕망과 딜레마

	1차적 욕망	2차적 욕망	장애물	딜레마
이리스	-자신의 재능을 보전	-또 다른 나를 통한 자아실현과 대리 만족 -모성애의 충족	-병(다발성 경화증) -피셔:복제사실을 공개하려함 -시리: 자신에게 반항, 일탈함	-자기애vs모성애
피셔	-인류에 기여하는 연구(복제금지법안 철폐)	-최초의 인간 복제연구 성공을 통한 과학자로서의 성취와 명예 -이리스에 대한 연모	-복제금지법안 -이리스: 자신을 이용만하려함	-일vs사랑
시리	-이리스에 대한 복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	-원본인간으로서의 이리스 -복제인간인 자신의 태생적 한계	-복제인간로서의 나 vs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

이리스에게 1차적 욕망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려 위기에 빠진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보전하고 싶은 것이다.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경우 인간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가진 것’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가는 바로 그 인물의 캐릭터를 분명히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편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의 치유, 생명의 연장 등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리스가 병에 걸린 상황에서 선택한 ‘가진 것’은 피아니스트로서의 재능이었다. 이 사실은 그녀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자신의 일과 성취에 집착하는 캐릭터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리스가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피서를 통한 인간복제이다. 영화 속에서 이리스는 한 점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선택을 추진한다. 자신은 의사가 아닌 체세포복제학자이며, 동물복제의 경험만 있다는 피서의 말에 이리스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가 다르죠?”라고 반문하며 인간복제를 강력히 권유한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리스에게는 앞서 본 고에서 살펴보았던 복제인간의 자기동일성에 대한 개념과 그에 대한 딜레마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복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인식과 개념이 그 정도로 미약하며, 이것이 이후 시리와와의 갈등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며 약간의 주저함을 보이지만 이내 인간복제에 동의하는 피서의 선택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전문가인 피서의 경우에는 인간복제의 문제점과 파급효과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하기보다는 과학자로서의 욕망이 앞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영화 속 피서의 캐릭터가 되기 때문이다.

이리스의 2차적 욕망은 어린 시리와 함께 거울을 보며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바쁜 연주 일정 때문에 어린 시리에게 소홀했던 이리스는 “엄마는 안 죽어. 네가 살아 있는 한 엄마는 안 죽어. 넌 내 생명이야.”이라고 아이에게 말한다. 단순히 딸을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일반적인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또 다른 나의 존재를 통한 자아실현과 대리만족, 나아가 삶의 연장이라는 원본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이리스의 욕망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나르시

시즘(Narcissism)’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6]

그러나 이후 시리가 성장해가고 피서에 의해 인간복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리스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아울러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방황하며 자신에게 반항하는 시리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로서의 모성애가 점점 커진다.[17] 이리스의 캐릭터 특성을 대표하는 ‘자기애’와 시리의 성장과 양육 과정을 통해 커가는 ‘모성애’의 충돌은, 또 하나의 나로서의 시리와 딸로서의 시리가 공존하는 것이 ‘비자연적’이며, 자신이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후회하게[18]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피서의 1차적 욕망은 학자로서 자신의 연구가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로서의 연구에 대한 열정은 최초의 인간복제 실험 성공자로서의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을 감싸고 있는 자기합리화의 당의정과 같은 것이다. 피서와 이리스의 캐릭터 상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충실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능동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리스와 시리[19]가 영화의 처음과 달리 이야기가 진행되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입체적인 캐릭터라면, 피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평면적 캐릭터라 할 수 있다. 이리스가 처음의 선택과는 달리 인간복제를 후회하고 시리에게 용서를 구한 것과 달리, 피서는 이리스가 죽기 직전 시리와 만나서도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다.[20] 그러나 피서 역시 아무런 딜레마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리스가 자신을 이용함을 잘 알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인간복제에 응한 것은 자신의 욕망뿐 아니라 이리스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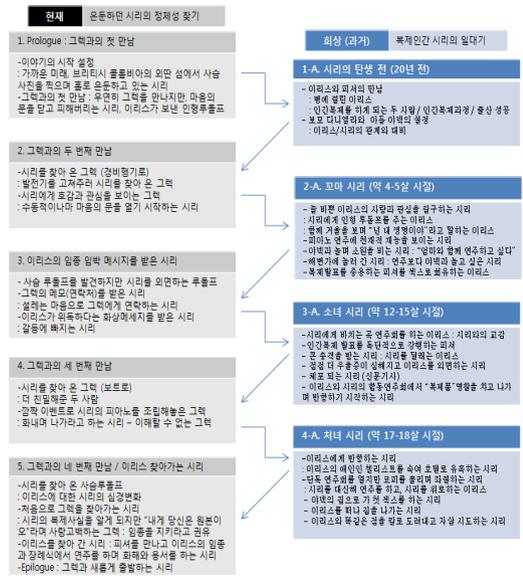
시리의 욕망은 두 사람과 그 출발점이 다르다. 이리스와 피서가 욕망의 주체자로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달성하려 했다면, 시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복제인간이라는 태생적인 문제에 대해 그것을 부정하고 벗어나려 하는 수동적인 욕망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정체성의 혼란에 대응하는 시리의 행동은 말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에서

부터 연주회를 마치고 ‘복제품’이라는 명찰을 착용하여 이리스를 곤란에 빠뜨리더니, 이리스의 연인을 육체로 유혹하고, 나중에는 가솔하여 이리스를 떠나는 것으로 점점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이 되어간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이해하는 그렉과의 교감을 통해 ‘나’라는 정체성 찾기에 대한 희망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토록 원망하던 이리스를 찾아 임종을 지키고, 장례식에서는 이리스를 위한 연주를 한다. 이것은 결국 이리스를 포용하는 것으로 시리의 욕망이 충족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3.2 인간복제 모티프와 영화적 플롯(plot) 설계

영화 <블루프린트>의 시작에서 결말로의 진행은 현재 시점에서 시리의 이야기와 시리의 회상으로 보이는 과거 이리스와 시리, 피셔의 인간복제에 얽힌 이야기라는 두 개의 행위 줄기를 따른다.

표 2. <블루프린트>의 서사적 평행성 플롯 분석



이 두 개의 줄기는 서사적 평행성[21]을 이루며, 인간복제 모티프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과거 부분은 이리스의 복제인간 시리의 일대기적 성장드라마 형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플롯 설계는 인간복제 모티

프를 둘러싼 세 인물의 욕망과 딜레마를 주로 시리의 시점에서 강조하고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위의 [표 2]참조, 이하 1, 1-A, 현재 시점, 과거 시점 등의 구분은 모두 [표 2]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극장 상영을 전제한 일반적인 상업 장편 내러티브 영화의 다수는 Act I, Act II, Act III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3장 구조[22]를 기본으로 한다. Act I에서 주요 등장인물의 소개와 이야기가 펼쳐질 세계에 대한 설정, 그리고 주인공이 해야 할 미션을 제시하며 관객과의 동일시를 유도하고, Act II에서는 온갖 장애물에 대응해 가며 미션을 이루고자 하는 주인공의 갈등과 딜레마, 그리고 이를 통해 변화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관객이 함께 웃고 웃는, 이른바 ‘뒤를 봐줄 사람’[23]의 입장에서 몰입하게 한다. 그리고 Act III에서는 모든 갈등과 사건들이 정리되고 결말에 이르게 된다.

[표 2]에서 보듯이 인간복제 모티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복제인간 시리의 일대기 부분은 그 자체로 일반적인 3장 구조를 따르고 있다. 즉, 1-A에서 시리가 복제인간으로 태어나기까지의 설정과 이리스와 피셔의 관계, 이후 이리스와 시리가 원본 인간과 복제인간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미션이 설정되고, 2-A, 3-A, 4-A에서는 이리스와 시리의 갈등과 딜레마가 점점 증폭되고, 피셔의 계속되는 공개 압박, 극성스런 언론과 주변의 시선 등 장애물이 등장하며 관객은 둘이자 하나인 이리스(시리)의 관계와 삶에 이입하여 이리스(시리)의 고통에 안타까워하게 된다. 그리고 4-A의 시리의 자살 시도에서 절정에 이르러, 마침내 5에서는 이리스와 시리의 극적인 화해와 용서로 결말을 맺게 된다.[24] 이렇게 볼 때, 영화 <블루프린트>의 인간복제 모티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극적 이야기 부분은 일정 부분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3장 구조의 플롯 설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영화 <블루프린트>의 플롯 설계는 이러한 3장 구조에서 벗어나 있다. 즉, 계속적으로 현재 시점의 시리의 이야기를 평행적으로 교차하며 진행해, 관객의 극적 몰입보다는 일정 정도의 거리 두기를 통해 관객이 인간복제 모티프에 대해 생각

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자면, 영화 <블루프린트>는 인간복제 모티프에 대한 직접적인 스토리는 3장 구조의 형태를 통해 관객의 정서적 이입과 극적 긴장감을 피하되, 전체적으로는 서사적 평행성을 갖는 구조를 통해 인간복제 모티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유도하는, 절충적인 플롯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인간복제를 모티프로 한 다른 영화들, 즉 <6번째 날>이나 <아일랜드> 등이 SF 장르를 중심으로 하고, 관객의 극적 몰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3장 구조를 따르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며, <블루프린트>가 상대적으로 인간복제 모티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진지한 성찰을 꾀하는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3.3 영화 <블루프린트>의 인간복제에 대한 영화적 설정의 특징

영화 <블루프린트>는 보편적인 체세포복제 방식과는 다른 특이한 기술적 복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일반적 체세포 복제술의 경우, 기증된 탈핵 난자에 원본 인간의 체세포, 그리고 대리모의 자궁이라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데 비해, 이리스는 본인의 난자에 본인의 체세포, 그리고 본인의 자궁을 통한 출산이라는 상당히 특이한 설정인 것이다. 이는 인간복제의 과학적 문제점의 하나로 전술한, 탈핵 난자의 세포질에 포함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 의한 변수를 원천 제거하여, 영화 속에서는 체세포복제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점보다는 자기동일성의 문제를 철학적 인간학의 차원으로 포커싱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일반적인 대리모를 통한 출산마저 배제하고 원본 인간 스스로 출산하는 상황으로 설정하여, 이리스와 시리가 원본인간과 복제인간이라는 본질적 관계와 더불어 출산의 고통을 실제로 겪는 엄마와 딸이라는 이중적인 관계의 딜레마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관객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완벽한 복제[25]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영화의 문제의식에 집중하여 접근하게끔 유도한다.

영화 <블루프린트>가 취하는 인간복제 설정의 또 다른 영화적 특징은 장르적 설정[26]을 그다지 활용하지 않은 점에 있다. 이 점은 유사한 소재 대다수의 다른 영

화들이 갖는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다르다는 점에서 도드라진다. 인간복제 모티프를 활용한 영화인 <6번째 날>, <아일랜드> 등의 영화들은 일반적으로 장르적 설정을 최대한 활용한다. 즉, 인간복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영화 속 설정들은 현재적 가능성과 이에 기반에 둔 현실성보다는, 주로 ACT I에 설정되는 영화 속 가상의 설정에 기반을 두고 이에 대해서는 논리성이나 현실성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는 관객과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야기를 진행하고, 그 안에서 일종의 판타지적 효과를 활용한다. 이는 대다수 SF 장르 영화의 특성이기도 한데, <블루프린트>는 이러한 장르적 특성의 활용보다는 인간복제의 근본적 딜레마를 SF 장르화 하지 않고, 현실적인 드라마타이즈에 집중하여 풀고자 하는 의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영화<아일랜드>와 <블루프린트> 비교

	아일랜드	블루프린트
제작시기	2005년	2003년
시간적배경	2014년	매우 가까운 미래
체감 환경	최첨단(먼 미래)	동시대
소재	장기대체를 위해 복제 인간을 주문하고 키우는 사회	복제인간을 따로 키우는 여주인공
장르	SF (액션스릴러)	드라마 (성장형)
주인공과 복제인간의 관계	-클라이언트와 상품 -서로를 잘 모름 -일방적 관계	-어머니와 딸, 원본인간과 복제인간의 이중적 관계 -상호적 관계
영화의 핵심논쟁점	복제인간의 도구화 가능성	복제인간의 비자연성

3.4 영화적 표현양식을 통한 인간복제 모티프의 특성

영화 <블루프린트>는 다양한 영화적 표현양식을 통해 인간복제 모티프의 특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복제 모티프의 이중적, 대비적, 중의적이며 아이러니한 예술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수렴한다.

그 대표적 예로는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공간의 전환과 프레임(framing)에 있어서 복제인간과 원본인간의 관계성 구축을 위한 촬영기법, 영화적 메타포를 강화하는 서레이드 기법의 다양한 활용을 들 수 있다.

3.4.1 시공간의 영화적 전환

앞서 3.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 <블루프린트>는 현재와 과거의 두 플롯 축이 서사적 평행성을 이루며 진행된다. 시공간의 전환은 영화 매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 기법으로 이를 통해 스토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예술적 표현을 얻어내기도 한다.

[표 2]의 1에서 1A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것은 시각적 유사함일 커트(Match Cut)^[27]이다. 시각적으로는 1에서의 화상통화의 종료 아이콘이 하나의 점처럼 보이더니 과거인 1A에서의 연주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리스의 직부감 shot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늙고 병든 이리스의 현재 모습과 과거 연주회에서의 젊고 자신만만한 이리스가 대비적으로 연결된다. [표 2]의 3에서 3A로 전환될 때는 이리스의 임종 압박을 시리에게 알리는 보도 다니엘라의 호소와 어린 시리를 데리고 연주회에 온 젊은 다니엘라의 “오늘은 널 위한 날이야, 시리”라는 말이 아이러니하게 연속된다. 4에서 4A로의 전환은 그레이 깜짝 선물로 조립해 놓은 피아노를 보고 화를 내던 시리와 젊은 애인남과 협연하는 이리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연속된다.

이렇게 영화 <블루프린트>의 시각적 유사성과 내용적 대조를 활용한 시공간의 전환은 영화적 아이러니함을 심화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복제 모티프가 주는 원본인간과 복제인간의 이중적, 대비적, 중의적 느낌을 영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4.2 관계성 구축을 위한 프레이밍

영화 <블루프린트>는 이미지의 프레이밍에 있어서, 일반적인 2 Shot에 비해 over-the shoulder shot(이하 OTS)을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OTS는 두 개의 대상 인물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면에서는 2 Shot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두 인물 중 한 명은 강조되어 보이고 다른 한 명은 포커스 아웃된 뒷모습만 보임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뉘앙스를 갖게 된다. 이는 보통 이전 장면에 설정된 내용에 의지하여 긴장, 친밀, 욕망, 중요, 사로잡힘, 음모 등을 암시하기 위해 활용된다.^[28] 영화 <블루프린트>의 인간복제 모티프의

중심에 있는 이리스와 시리, 즉 원본인간과 복제인간,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캐릭터의 아이러니한 운명,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증의 시선과 관계를 반복적인 OTS의 활용을 통해 영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빈번한 OTS의 활용에 비해, 이리스와 성인이 된 시리가 한 프레임에 동시에 얼굴이 보이는 2 Shot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29]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한 세상에 똑같은, 그러나 사실은 같지 않은 두 사람이 얼마나 낯설고 비자연적인 것인가를 영화적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다.

3.4.3 영화적 메타포의 활용

영화 <블루프린트>는 인간복제 모티프를 다양한 세레이드 기법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는 ‘루돌프’이다. 영화의 도입부인 [표 2]의 1 부분에서 시리가 사진을 찍는 대상으로 처음 등장하는 흰 사슴 루돌프는 현재 시점의 시리의 이야기 줄기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시리가 돌보아 주었다는 사슴 루돌프는 시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존재로 설정된다. 그리고 이리스에게서 온 소포 안에 들어 있는 사슴 인형을 보고 잠시 회한에 잠기는 시리. 이후 과거 시점인 [표 2]의 2-A에서 관객은 그 인형의 이름이 루돌프이며, 이리스가 “엄마가 없을 때 너랑 친구 해 줄 거야.”라며 어린 시리에게 주었던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 시절, 늘 바쁜 어머니 이리스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시리에게 사슴인형 루돌프는 단순한 인형이 아닌, 엄마의 사랑이자 애정의 대상임을 메타포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이리스와 어린 시리의 행복한 피아노 연주 장면에서 캐럴 ‘루돌프 사슴코’를 부르는 것으로 더욱 심화된다. 또한, 역설적으로 루돌프는 어릴 적 시리의 사랑의 결핍에 대한 트라우마의 메타포로도 작용하여, 현재 시점의 시리는 계속해서 인형이 아닌 살아 있는 사슴 사진에 집착하고, 특히 자신이 어려서부터 돌봐 준 흰 사슴에게 루돌프라는 이름을 짓고, 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 나아가 사슴 루돌프는 마치 시리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듯이, 그렉을 통해 마음을 열기 전에는 늘 시리를 외면하고 가까이 오지 않지

만, 그렉을 통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현재 시점인 [표 2]의 5에서는 오히려 시리를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리스를 찾아가게 되는 시리의 심경변화를 메타포 하기도 한다. 원본과 복제라는 인간복제 모티프를 사슴 인형이자 살아 있는 사슴인 루돌프라는 서레이드를 통해 절묘하게 영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리스와 시리의 오른쪽 뺨에 보이는 점 역시 서레이드를 잘 활용한 영화적 표현이다. 2-A에서 이리스와 함께 거울을 보며 어린 시리는 이리스의 점과 자신의 점을 차례로 짚으며 “엄마, 쌍둥이”라고 말한다. 어린 시리에게 엄마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생긴 얼굴의 점은 동일성의 상징으로 각인된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시점의 막바지인 5에서 자살을 시도하기 전 칼로 점을 도려내는 시점에서 역으로 활용된다. 어린 시절의 점이 엄마와의 일체성을 확인하는 행복이었다면, 복제 사실을 알고 끝내 자살까지 시도하게 되는 정체성 혼란의 시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복제인간이기를 거부하는 행위의 대상이자 상징이 되는 것이다.

거울과 피아노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활용된다. 복제 사실을 모르던 어릴 적의 거울과 피아노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복제 인간임을 알게 된 이후 그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며 벗어나고 싶은 것이 된다. 그래서 현재 시점 2에서 시리의 집에서 거울을 찾는 그렉에게 시리는 “그런 것 없어요.”라고 정색하며 대답한다. 그리고 서로가 어느 정도 가까워진 현재 시점인 [표 2]의 4에서도 그렉이 깜짝 이벤트로 창고의 피아노를 조립해놓자, 시리는 돌연 화를 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친다.

또한 거울은 그 물리적 특성상, 비추어진 자신, 또 다른 나의 이미지와 같은 중의적인 시각적 표현으로 활용되며, 피아노는 이리스와 시리의 직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연주 음악을 활용한 영화의 청각적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영화 <블루프린트>에서 서레이드를 활용한 영화적 메타포들은 영화적인 시각적, 청각적 표현과 결합하며 인간복제 모티프의 의미를 중층적으로 만들고 영화적 아이러니를 심화 시켜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III. 결론

복제 양 돌리의 탄생으로 상징되는 체세포 복제술의 출현은 인간복제를 모티프로 하는 영화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잔혹한 음모>(1978)나 <블레이드 러너>(1982)가 전자라면, <6번째 날>(2000)이나, <아일랜드>(2005)는 후자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블루프린트>(2003)는 여타의 인간복제 모티프영화와 달리 인간복제의 비자연성 문제에 주목하여 다양한 영화적 표현양식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가진다. 아울러 주로 SF 장르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인간복제 모티프 영화와 달리, 동시대의 과학적 성과를 현재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리얼리즘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다루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본 고에서는 체세포 복제술 개념의 출현과 발전이 철학적 인간학의 문제로 귀결되고, 특히 인간복제의 비자연성 문제가 영화 <블루프린트>에서 캐릭터의 욕망과 딜레마로 투영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원본인간과 복제인간의 사이이자, 실제 낳고 기른 친모와 딸이라는 이중적인 관계의 영화적 설정은 이 작품이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천착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적절히 부응하는 서사적 평행성을 갖는 플롯 설계와 더불어 다양한 영화적 표현양식을 통해 일관된 접근 태도와 주제 의식으로 인간복제 모티프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주로 영화적 스토리텔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영화 예술이 갖는 이미지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콘텐츠의 예술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미흡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며, 이는 차후 또 다른 접근 방식의 발전적인 후속 과제로 기약하고자 한다.

흥미로운 설정과 차별화된 접근방식, 1인 2역을 소화한 독일의 유명 배우 프란카 포텐테의 열연, 어머니의 애인을 똑같이 생긴 딸이 유혹하는 부분과 같은 매력적인 에피소드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리스의 후반부 변화에 대한 설명 부족, 시리의 가출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극적 긴장감 문제 등의 영화적 한계를 드러내며, 대중적인 흥행에는 별다른 성공을 하지 못한 것은 영화

<블루프린트>의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영화 <블루프린트>는 관습적인 접근 방법을 벗어나, 영화 속에 투영된 인간복제 모티프의 특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다양한 영화적 표현을 통한 인간복제 모티프 영화의 새로운 시도와 성취로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인간복제라는 모티프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어떻게 투영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제기함으로써, 급속히 발전하는 인간복제 기술의 현실화와 발맞추어, 새로운 인간복제 모티프 영화 탄생의 시급성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손병홍, “인간복제와 개인동일성”, 과학철학, 제6호, pp.99, 2001.
- [2] 본고에서 ‘모티프’는 소재가 표현의 동기가 되어 인물이나 상황과 어우러져 플롯의 전개를 통해 창작에 기여하는 요소라는 폭넓은 맥락으로 사용한다.
- [3] 손병홍, 앞의 논문, pp.97-98.
- [4] 최강열, 김연수, “1993년부터 인간복제 시작됐다”, 과학동아, 4월호, pp.43-46, 1997.
- [5] 대표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완벽한 제어 불가능과 돌연변이 발생 문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체세포복제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한계와 문제점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자연과학 분야 연구가 아닌 본 고의 특성상 윤리적, 문화적 문제점을 중심에 두기로 한다.
- [6] 최재천, “출산시간 많이 벌어진 쌍둥이일 뿐-진화에 역행하는 유전자 조작 피해야”, 과학동아, 1월호, pp. 47, 2003.
- [7] 막스 셸러, 허재윤 역, 철학적 세계관, 박영사, pp.19, 1977
- [8] 한희숙, “복제인간은 존엄한가?-복제인간에 관한 인간학적 숙고”, 인문학연구, 제6집, pp.182, 2002
- [9] 한희숙, 앞의 논문, pp.186.
- [10] 정규태, “복제 배아에서 즐기세포 배양”, Be Scientists, 4월호, pp.14, 2004.
- [11] 김보일, “영화 속 논리 엿보기-도구적 세계관에 대한 통렬한 풍자”, 논, 제7호, pp.196, 2006.
- [12] 이필렬, “복제인간의 정체성 혼란”, 창작과 비평, 제120호, pp.393, 2003.
- [13] 권태영, 자크 라캉-욕망이론, 문예출판사, pp.19, 1994.
- [14] 로버트 맥기, 고영범, 이승일 역,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황금가지, pp.532, 2002.
- [15] 안느 위에, 김도훈 역, 시나리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80-81, 2006.
- [16] 프로이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의 단계 뒤에 나타나는 대상 선택과 리비도의 발달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형을 갖는 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자아 대신 자아와 될 수 있는 한 닮은 것을 선택하는 <나르시시즘형>과 하나는 <의존형>이다.” S.프로이트, 구인서 역, 정신분석입문, 그레이트북, pp.410, 1994.
- [17] 대리모를 통한 일반적인 체세포복제의 경우와 달리, 직접 이리스 자신이 출산한다는 영화적 설정 참조. 이리스는 “넌 내 배 속에서 자랐어. 다른 애들처럼 10개월을 똑같이. 넌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라고 시리에게 말한다.
- [18] “신이여, 날 당신 뜻대로 하소서. 돌이든 나무든 새로 만들든. 하지만 똑같은 인생만은 절대 아니도록. (Lieber Gott, mach alles, was du willst, aus mir mach einen Stein, einen Baum, einen Vogel aus mir nur mach mich nicht noch einmal.)” 이리스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의 내용 참조. 톨프 슈벨 감독, “블루프린트”, 독일, 112분, 2003.
- [19] 이리스와 성인 시리 역은 독일 여배우 프랑카 포텐테(Franka Potente)가 1인 2역으로 연기했다.
- [20] 피셔는 “네 엄마와 내가 한 일은 우리 인류에게 이익이었어. 우린 가능한 걸 시험했고 그게 과학

자의 임무야.”라고 시리에게 말한다.

- [21] 이러한 플롯 설계는 영화 <시민케인>이 톰슨의 케인에 대한 추적과 과거 케인의 일생이라는 두 개의 행위 줄기를 따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사적 평행성과 플롯 전개 유형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는 아래 참조.
데이비드 보드웰, 크리스틴 톰슨, 주진숙, 이용관 역, *영화예술, 이론과 실천*, pp.128-130, 1993.
- [22] 3장 구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는 시드 필드, 유지나 역,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1. 참조.
- [23] 로버트 맥기, 고영범, 이승일 역, 위의 책, pp.217.
- [24] 영화의 일부분을 독립적인 구조로 가정하고 분석한 것이므로, <표2>의 5에서는 그래픽의 부분을 제외한 이리스의 임종과 시리의 용서에 관한 내용으로 재구성했을 경우로 전제한다.
- [25] ‘한 여성이 자신의 탈핵 난자에 자신의 체세포의 핵을 이식할 경우에만 문자 그대로의 완벽한 유전자복제가 가능하다.’
윤용택, “복제인간에 대한 철학적 고찰”, *계간 과학사상*, 봄호, pp.218, 2004.
- [26] ‘장르는 스타일, 가치기준 그리고 선택된 소재에 있어서의 관습들의 특징적 집합으로 구분된다.’
루이스 자네티, 김진해 역, *영화의 이해-이론과 실제(4판)*, 현암사, pp.314, 1995.
- [27] 제니퍼 벤 시즐, 정재형 역, *영화영상 스토리텔링100*, 영화진흥위원회/책과 길, pp.154, 2009.
- [28] 제니퍼 벤 시즐, 정재형 역, 위의 책, pp.202.
- [29] 물론 여기에는 1인 2역으로 촬영된 영화의 특성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OTS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배치, 동일 프레임 2Shot의 절제와 마지막 이리스의 임종직전 침대 장면에서의 극적 활용 등을 볼 때, 단순히 CG를 통한 합성작업을 줄이려는 의도로만 보기는 어렵다.

저 자 소 개

정 원 식(Won-Sik Jung)

정회원



- 2000년 2월 : 고려대학교 철학과 (문학사)
- 2009년 2월 :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영화영상제작 석사)
- 2009년 3월 ~ :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박사수료(예정) /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 영화영상,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영상교육